

2022 설날가정예배



조상의 덕을 기리며 예배드립니다. 지난 일 년을 감사하고 새해의 복을 간구합니다.

개회 / 인도자,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 다같이,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3.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4. 땅돌아 바다야 많은 섬들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 / 말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가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귀한 명절 아침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가정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을 사모합니다. 2022년에 에베에셀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복독 / 말은이, 시편 84편 10~12절

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설교 / 말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 가족이 이렇게 설날을 맞아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예벰에셀’ 곧 도움의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에도 함께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런 한 해를 보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 가정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보다 하나님 집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배의 자리를 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유혹,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기면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을 당신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 등이 그러했습니다. 올 한 해, 다른 것에 마음과 시선을 두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말씀을 듣고 기도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공예배 곧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예배와 더불어 우리 가정이 말씀묵상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하나님이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고들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넉넉하게 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와 감격 넘치는 한 해를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삼년 째입니다. 그동안 쉽지 않았습다.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신실하게 일 하십니다. 거룩하게 살려는 그리스도인을 지키며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예벰에셀 곧 도움의 반석이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공예배와 매일의 말씀묵상을 꼭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시다. 2022년 한 해 내내 하늘의 복을 넉넉히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 설교자

덕담을 나누는 시간 / 가족 중에

지난해의 좋은 일을 나눕시다. 새해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도 좋습니다.

찬송 / 다같이,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1.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2.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3.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4.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둔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폐회 / 다같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